



하나금융,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5일 '2026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와 함께하는 내일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 소개와 올해 선발된 신입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한화그룹, 창원서 '맑은 학교 환경운동회' 개최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창원 대원레포츠공원에서 경남 지역 초등학교와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맑은 학교 환경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논리배출 뉴시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 이후에는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됐다. /한화그룹



휴앤쇼핑, 푸른등대 휴앤스마일 장학금 수여식
 휴앤쇼핑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과학기술사 박물관에서 '푸른등대 휴앤스마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 52명의 대학생에게 총 5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권진미 휴앤쇼핑 대표(왼쪽)가 장학생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휴앤쇼핑



KT, 'KIT 4기' 본격 활동... AI 윤리캠프 연다
 KT는 대학생 봉사단 'KIT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KIT 4기 대학생 봉사자 24명은 4개월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한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AI 윤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KT



시몬스, '2026 파머스마켓' 성료... 1만명 몰려
 시몬스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시몬스 테라스'에서 2026 파머스마켓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파머스마켓에는 날들이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 기간 누적 방문객 약 1만명, 부스 매출 약 5000만원을 기록했다. /시몬스

한성숙 장관 “지역서점, 상권의 문화 앵커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공주 산성시장·제민천 일대 방문
 동네책방 간담회... 지원계획 밝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역의 이야기가 축적되는 지역서점을 상권의 문화 앵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협업, 상권 활성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충남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과 제민천 일대 상권을 방문해 지역서점 ‘오래된 질문’에서 동네책방 간담회를 갖고 “동네책방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떡과 반찬 등을 구매하고 최근 고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시스

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제민천 일대 상권을 방문해 오래된 여관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재탄생시킨 ‘공주 청년 공

표, 세종에서 단비책방을 운영 중인 연영숙 대표, 대전에서 다다르다를 운영 중인 김준태 대표 등 총정원 지역서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과 상권 기획자 및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의 ‘동네책방 현황과 우수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동네책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이어서 제민천 인근 독립서점 ‘오래된 질문’에서 동네책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래된 질문 지명훈 대

표, 세종에서 단비책방을 운영 중인 연영숙 대표, 대전에서 다다르다를 운영 중인 김준태 대표 등 총정원 지역서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과 상권 기획자 및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의 ‘동네책방 현황과 우수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동네책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G엔솔, 배터리 분야 발명·출원왕 선정

박병천·장혁균 등 우수인재 시상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를 확보한 연구 인재들을 포상하며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2026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열고 박병천 양극재기술담당 등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한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발명왕 금상은 ‘LMR Cell Chemistry’ 분야 핵심 특허를 확보한 박병천 양극재기술담당이 수상했다. 박 담당은 LMR 양극과 실리콘 음극 조합의

기술적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특허 장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출원왕 금상은 배터리 팩 듀얼쿨링과 상하부 벤딩 분야 등에서 다수의 핵심 특허를 출원한 장혁균 선임이 받았다. 장 선임은 열전지 지연과 가스·스파크 제어 구조 등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팩 설계 기술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구성원들의 창의적 도전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환경을 전폭 지원해 압도적 기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희 기자 wkh@



지난 1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에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제4회 자율준수의 날’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콜마그룹

콜마그룹, 전사 차원 준법경영 강화

창립 36주년 맞아 ‘자율준수의 날’ 행사

콜마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입증한 데 이어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 체제 확립에 역량을 쏟는다.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국콜마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과 세종공장에서 각각 ‘제4회 자율준수의 날’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그룹 전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재정비하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였다.

임직원 참여형 활동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리 경영을 선언하는 서약식이 진행됐고 앞서 콜마홀딩스는 ‘CP 공모전’도 열었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자율 준수 문화에 대한 슬로건을 선정했다.

또 지난 11~14일 한국콜마는 ‘준법

MBTI’, ‘자율준수 사례 판단 챌린지’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자율준수 우수 실천자로 뽑힌 임직원 5명은 상패도 받았다.

콜마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준법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3년부터 그룹 창립일 5월 15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아울러 콜마홀딩스의 경우 올해 지속가능경영사무국내 자율준수 전문 조직을 분리해 CP팀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가치와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더욱 강화된 사회적 책임과 기대에 맞춰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동국제약, 대국민 금연 캠페인 전개

동국제약이 금연의 중요성을 확산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건강소비자연대와 함께 대국민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연 독려 포스터는 가족 건강을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간접 흡연, 담배 냄새 등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또 금연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니코스탑과 연계한 행사도 전개한다.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약국 내 소비자 금연 상담을 운영하는 등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청하기자

GS건설, 가족친화 문화 확산 ‘앞장’

GS건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그랑열린데이’ 행사를 열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나섰다.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에서 진행됐다. GS건설은 임직원과 가족 약 200명을 초대해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체험하고 회사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해볼 수 있는 안전장비 체험존과 캐리커처 이벤트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육 옥상 스카이가든에는 에어바운스와 간식 공간이 마련됐으며, 사원식당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식을 제공했다. /상해미 기자 cshmi@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 공유

2100회 컨설팅... 만족도 94.3점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목적으로 시행됐다. 전체 지원 대상인 8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1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이 제공됐다. 예비장

업을 위한 창업컨설팅과 폐업 예정자를 돕는 폐업 컨설팅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컨설팅이 끝난 소상공인이 주거대 은행을 통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컨설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채용 △ 감사관 남가영 ◆뉴데일리 △ 군사·우주전문기자(부시장) 김민석

【부음】 ▲윤복순씨 별세, 이규중(전 KBS 보도영상국장)씨 모친상 = 18일 오전 5시 44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02-6986-4440